

# "러시아에 ана키즘이 필요한가?"

심장중의강철

사회혁명 만세!

노동자의 대의 만세!

아나키 만세!

-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ГРУППА АНАРХИСТОВ.

1904년 파리

-----

'러시아에 ана키즘이 관계 필요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건 다음 질문처럼 매우 이상하게만 들립니다.

인간은 거짓을 원합니까 아니면 진실을 원합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진실이 오직 소수의 선택된 자에게만 봉헌되는 것이 과연 개인의 권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개인 해방의 과업을 성취한 것일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들어보고 답을 추구하려는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런 선택된 자들인 정당들은 개인 해방의 과업을 성취할 수도 없고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사회주의는 너무 먼 공상 속 이야기다. 사회주의의 실행은 필요하지 않고 부르주아 자본주의 체계에서도 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악영향을 충분히 없앨 수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인민은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 있으며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르주아 계급에게 권력을 위임시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것은 전혀 인민들에게 위해가 될 행동이 아니고 국가와 부르주아 계급은 인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만약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원한다면 사회주의 정당이 대통령 혹은 총리직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사회주의 사상이 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러시아에 ана키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거고 어떤 이들은 ана키즘이 폭력이지않게 '때'가 온다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들의 논리는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 우린 동의하지도 않으며 그 말이 맞다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들은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자가 의회에서 좌석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좌석을 얻고난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려하니까요.

우린 이미 전부터 국가와 정당이란 것이 가지는 권력과 지도자, 권위를 부정하기에 우린 저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부터 아나키즘을 미워하는 '인민에게 권력을 봉헌받은' 지도자와 정치인들, 예컨대 니콜라이 1세[1]나 아락체예프[2]같은 이들이 자신들이 그저 아나키즘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선진적이고 위대한 지식인, 지도자인 우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어떻게 인민들이 통치하냐'라고 말을 하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수려할 것이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부르주아 정당이 되었다 한들 달라질까요?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원한다면 '인민들이 만들었다는 정당의 법'과 '경찰력과 군대'를 이용해서 오히려 인민의 의지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박살내며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은 실패했고 그냥 이상주의자들의 헛된 외침이다. 라며 교육시키고 선전하겠죠.

물론 정당을 이용한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꺼고 그들은 아래와 같이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국가와 자본주의는 문제입니다. 아나키즘은 위대한 이상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입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에 아나키즘은 시기적절하지 못하기에 아나키즘 정당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만들어서 아나키즘(혹은 코뮌주의)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납득할 논리가 없습니다.

이는 기회주의이고 그저 자기들의 권력적 야욕을 충족하고 도덕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만족에만 불과한 행동이니깐요. 사회주의 정당, 노동자 계급 정당, 아나키즘 정당이라고 만들어지는 정당은 오히려 그 존재 자체로 노동자들의 혁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결정적 순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일단 일부 사람이 아나키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들 만들어서 아나키즘을 퍼트리고 아나키즘적 활동을 통해 이를 알리려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정치, 경제적 문제에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바꾸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그 정당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정당에 대해 부르주아, 사회민주주의자, 점진적 개혁주의자,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할 것이고 심지어 비 아나키즘적 사회주의 정당도

우리에 대해 반대할 것입니다! 아나키즘은 그들에게 생소하거나 급진적이고 자신들을 무너뜨릴려고 하니깐요. 그리고 거기서 제동이 걸리는 순간

아나키즘 정당은 무너지고 떨어지고 패배할 것이고 사회는 다시 보수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3]가 썼던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 등장하는 허무주의자 예브게니 바자로프[4]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소설에서 구세대를 옹호하던

반동주의자들과의 토론을 끝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래와 같이 그는 이렇게 말하며 토론을 끝냈습니다!

지금 시대에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기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는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르주아들의 도구인 성당에서 예배하던 것을 멈췄고 과학을 부정하는 모든 관념적 요소를 부정했습니다!

그 어떠한 기관도, 그 어떠한 개념도 과학의 교훈과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할 가치밖에 없던 것이었으니까요! 참된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 옆에 있는 가족이, 자신을 보던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동기들이 자신을 보고 있던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60년대[5]들이 그랬고 이들은 60년대의 젊은 세대로서  
늙은이들이나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아나키즘 운동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은 부르주아 정치가와 다른 전위 사회주의자들과 다른 시각으로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웬까요? 대체 왜 다르게 보고 절대적인 무언가는 없다고 보는 걸까요?

왜냐면 아나키스트들은 봉건제와 부르주아 국가의 자본가들, 지주, 성직자와 지도자들은 인류를 억압하는 족쇄를 쥐고있다고, 그 족쇄를 부셔야만 인류 해방의  
첫 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하나만 사라진다고 해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사라져야만 해방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손은 손을 씻습니다.[6]

지주, 자본가, 차르주의자, 차르, 자유주의자, 변호사, 사형집행인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도 있지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지주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면, 더이상 그들에게 모자를 벗고 나가서 제발 도움을 주라고,  
개혁좀 해주십시오라며 굽히지 않고 스스로가 삶을 바꾸기 위해 일어난다면 저들은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노동자와 농민들을 공격  
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1848년 파리 코뮌이 일어났을 때 파리의 인민들을 공격하던 것은 자유주의자였고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인류가 발전할 때는 오직 혁명으로 사회가 바뀔 때만이였음을 말하고 평화적 발전의 시기는 혁명기에 나왔던 사  
상이 실현되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혁명은 인민들이 직접 움직일 때만 실현이 가능하며 혁명을 가로막던 부르주아를 몰아내고 노동자들 자신들의 손으로 오래된 구  
체제를 직접 멸망시키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바스티유 감옥이 불탈 때 프랑스 전역에서 지주들의 재산은 불탔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노예계약서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주는 다시금 농지를 빼앗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들이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게르만인들의 땅으로 도망가려던 프랑스의 왕이 잡혔습니다.

1792년에 루이 16세가 잡혔고 그때까지 수다나 떨던 부르주아들은 왕을 강제로 처형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시기가 다시 찾아왔고 의회에서는 지롱드를 축출하였고 부르주아 대표자들은 자유, 평등, 연대를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토지의 재분배, 부의 평등, 혹은 정당한 세금만 요구하거나 강탈당한 빵을 되찾기 위해 인민들에게  
집행 권한을 넘겨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르주아 대표자들에게 이들은 그저 반역자였고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탄압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혁명이란 것을 전에 이해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시금 이해해야합니다.

지주, 부르주아 및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당에게 우린 질문을 하려합니다.

첫번째로 당신들은 투쟁을 주도하긴 했습니까? 우리 문명 전체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결실을 맺어 만들어졌는데 고작 빵 한조각  
이나 던지면서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대들이 그렇게 말하던 인류애, 동지애입니까? 그저 자신들  
이 미움받기 싫어서 다른 정치적 희생양만을 찾던거 아닙니까?

두번째로 그대들이 만든 혁명의 순간에 인민들이 얻은 것이 있긴 합니까? 이 질문은 다른 어떠한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임

니다.

의회나 광장, 나아가서 그대들이 주도하는 운동에서 그대들이 제시하던 새로운 '사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사상'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질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린 파리코뮌에서 노동자, 농민이 제시했던 자유로운 코뮌의 연합을 지지하고 그들의 사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871년의 파리코뮌은 진실된 미래를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계획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질문은 그대들이 할려는 운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뭐 그대들이 무슨 선하던 선한 마법사라도 된다면 한 번의 손짓으로 사람에게 부와 행복을 무한히 줄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대들은 마법사도 아니며 부와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린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려합니다.

저들이 주는 선물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누구에게 기대며 선물만을 기대하지 말자.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을 정복한 자들만이 굳건하게 살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마법사는 없었고 그 누구도 무한한 부와 행복을 무한히 선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그런 마법사로 포장하며 선전하고 '백성'들에게 온갖 축복을 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프랑스 혁명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중, 특히 동부 프랑스에서는 1788~1793년 사이에 농노제가 완전히 농노들의 힘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갈퀴와 몽둥이를 손에 들은 농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힘으로서 지주들로부터 강탈당한 자신들의 땅을 되찾았고 도망치던 왕을 붙잡아 파리로 뺄 차버렸습니다!

스스로 농노제의 기반아래 발전했던 마을의 관료제를 무너뜨렸고 국가의 손에서 인민들을 노예화 시키던 국가 산업장을 모조리 부수고 새로운 인민들의 작업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린 이 투쟁을 칭찬하고 옹호합니다! 이들은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행동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에게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몰아내고 '반역자'들이 당당히 그 기생충들을 향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인민 운동이란 바로 이런 것이란걸 말하고 있습니다.(당대 부르주아와 지배자들은 그때부터 이미 이를 아나키즘적 운동이라고 부르더군요 참 감사해라.)

우린 이러한 인민운동에서 미래 발전을 봅니다, 대중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왕실, 제국군에 저항할 수 있으며

저항 끝에 모든 대중 운동의 선봉으로서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키려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아!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혁명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혁명이 끝나고서는 새로운 반동세력이 반대 세력을 모두 죽이려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혁명의 수호자가, 혁명의 구세주가 왕, 황제, 황실 관리, 자본가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하며 세뇌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그 지지를 바탕으로 그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정당성'을 얻으려 했겠지요. 하지만 우린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란걸 믿지 않는다!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허락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반항하자!

나를 강탈하고, 나를 억압하려는 모든 자에게 반역합시다! 지상의 부는 노동하는 이들의 것이다! 자본가나 지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농민의 것이고 공장은 공장 노동자의 것이고 탄광은 탄광 노동자의 것이고 숲은 모두의 것이며, 철도는 철도 노동자의, 도

로는 도로 노동자의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노동자 농민의 것이라고! 누구도 강제로 이를 독점할 권한은 없다고! 다시는 기생충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서유럽의 ана키스트들이 하던 생각이었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6세기부터 시작된 혁명의 필요성이 서유럽을 강탈할 동안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노예제의 유산이 가장 깊게 박혀있는

이 땅 러시아에선 혁명이 적으며 그렇기에 ана키스트가 더욱 러시아에 필요한 것입니다!

서유럽은 이미 혁명의 전통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제 막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유럽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혁명의 사상이 다시 대담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사상의 노예를 자처하는 젊은 혁명가에서도

마치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외우듯이 마르크스의 성경으로 맹세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서 위대한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의미합니다, 그대들은 공장과 농장에서 일해봤습니까?

서유럽 노동자들은 더이상 신비한 조직을 믿지 않으며 혁명의 때가 올 때 명령을 내릴 이를 기다리며 명령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은 러시아보다도 혁명의 대의가 늦게나온 군국주의의 마수가 뻗친 독일에서만 나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혁명의 대의를 오래 경험해본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소수의 이들이 과감하게 무언갈 하고싶다고 당국에 허락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새롭게만 느껴집니다.

한 마디로 서유럽이 아닌 곳에서 국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농민과 노동자의 혁명, 반항적인 정신과 개인의 주도하는 용기를 일깨워주는 곳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하고 대담한 ана키스트 선전을 필요로 하는 곳은 더욱 적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빈약할지라도 최소한의 헌법이라도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헌법이 러시아 인민의 이익에 무엇이 됩니까? 그저 법만 있으면 된다는 서구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에나 물든 패배주의적 발상이 아닙니까?

우린 러시아에서 광범위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늦게 혁명이 시작된 우리들이더라도 우린 성장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의 선봉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혁명처럼 광범위하게든, 아니든 필연적으로 러시아에 대의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대의제 정부는 다음과같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혁명은 분명 러시아 주도의 전제군주적 헌법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줄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인민의 삶의 경제적, 국가적 기반 자체를 바꾸는 일일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수많은 영양실초에 걸린 기아들이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의 궤양입니다.

러시아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다름아닌 바로 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빵은 토지의 재분배에서 온다고 홍보해야합니다.

즉 그들은 누가 주는 것에만 빠져있는게 아니라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서 토지를 분배하고 식량을 분배할 것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공장, 탄광, 숲, 소금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노동자들이 인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고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의 손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처럼 국가는 노동자를 탄압할 것입니다. 하지만 혁명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부르주아와 왕들에게 무너졌을 때 인민은 다시 일어나 억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무너져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 파리에서 인민들이 적기를 들며 일어났습니다.

파리에서 인민들이 무너졌어도 혁명의 열기는 아직도 프랑스에 남아있습니다.

아니!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욱더 멀리 퍼져있습니다!

오래된 노예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헌법이 가지는 의미가 없더라도 러시아의 수많은 혁명가들이 이를 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시점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차르'와 '일본'과 같은 이들에게 헌법을 만들어 달라고 구걸합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헌법은 아무 것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진정한 혁명을 위해서 러시아에 아나키즘은 필요하고 더욱더 필요하고 지금보다도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빵의 쟁취

(Хлеб и Воля)

1904년 제네바

[Женева], 1904. Л& 10. Июнь. С. 1-3.

[1] Николай I Павлович. 1796~1855. 러시아 제국 11대 황제이며 아버지가 나로드니키 허무주의자에게 암살당하자 전제왕권을 공고히하며 자유주의는 물론 전제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을 탄압했음.

[2] граф Алексе́й Андре́евич Аракче́ев. 1769~1834. 러시아의 군인이자 정치가로 알렉산드르 1세의 즉위를 도왔으며 국가 재정을 이유로 둔전병 제도를 실시하다가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후에 그의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을 아락차라예프 시치나라고 부르며 포악한 군정의 대명사로서 쓰였다.

[3] Ива́н Серге́евич Турге́нев. 1818~1883. 19세기 후반 러시아 문학사의 대명호중 한 명이며 그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서 등장인물 바자로프를 허무주의자라는 단어로 묘사하면서 러시아 전국적으로 허무주의라는 단어가 퍼져나감.

[4] Евге́ний Васи́льевич База́ров. 투르게네프가 쓴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 등장하는 인물로 허무주의자로 등장하며 기존의 사회 가치와 전통을 부정하는 인물로 등장.

[5] Шестидесятники. 러시아 농민 봉기, 농민 개혁, 가장 급진적인 사회 개혁, 혁명을 준비하던 지식인등을 말하며 나로드니키 운동의 기반을 마련했고 러시아 혁명적 테러리즘의 1세대를 차지함. 위에 말한 바자로프가 이 60년대를 묘사하는 인물임.

[6] рука руку моет, вор вора кроет. 손은 손을 씻고 도둑은 도둑을 숨긴다는 러시아의 속담. 모든 추악한 일에는 공범자가 없을 수 없다는 속담.